

전남 4개 시·군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시동

전남도·강진·목포·영암·무안 2~10월 기본계획용역 실시

전남도와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등 4개 시·군이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와 4개 시·군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로 전남도 도자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도자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12일 전남도와 4개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진군청에서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7월 강진원 강진군수가 김영록 도지사와 면담을 시작으로 인근 시·군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제안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전남도와 4개 시·군이 함께한 첫 간담회로 그

동안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실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착수 보고회에서 전남도와 4개 시·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행사 승인 기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 있는 박람회장 기본구상, 타 지자체 도자 비엔날레와 차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남도와 4개 시·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주관으로 문제부,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부터 전남 서남부권은 월등한 기술력과 풍부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무안·목포·영암·강진으로 이어지는 전국 최대 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왔으며 전국 도자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도자기



전남도와 4개 시·군이 지난 9일 강진군청에서 전남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강진군 제공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경기도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도와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는 공동 개최 지

자체들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서남권이 한국의 새로운 도자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강진=김운복 기자

진도군의회, 베트남 현지 시장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국외연수

진도군의회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난 2~6일 베트남에서 진행됐으며 현지의 농업, 환경, 복지 시설을 방문하고 진도군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친환경 수경재배를 통해 소득증대를 이루고 있는 푸이로안 농장과, 베트남의 사회적 문제인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 이송 집하장 및 고아·장애아동의 자립을 도우며 양육하고 있는 희망마을(고아원) 등을 견학 및 체험했다.

진도군의회는 이번 연수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친환경 수경재배 도입, 진도군의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 복지시설 자립 지원 등 진도군 정책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군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을 대상으로 제1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5월 말까지 주 1~2회 운영되며 총 635명이 참여하게 된다.

노인분야 스마트폰과 연애하기, 웃음벨 치매예방 공작활동 등 15개 프로그램, 장애인분야 재활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자격증, 우크렐라 등 21개 프로그램과 여성분야에 퍼포먼스, 난타, 제과제빵 등 19개 프로그램 및 남성분야 드럼중급반, 요리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이다.

직장인을 배려해 평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존 ‘여성 자치대학’에서 이번에 전군민 대상 과정으로 확대개편된 ‘군민 아카데미’는 65세 이하 12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19주간 운영(4회는 전체 군민 참여)될 계획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강화 해남군, 월 11만원→15만원

해남군이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지원한다. 대상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이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된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일반재산 농어촌 기준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은 162만200원, 주거지원은 25만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이내, 부가급여로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을 주민자치센터, 요가·라인댄스 교실 운영

무안군 무안을 주민자치센터가 요가,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신경심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무안군 제공

강진군 청년공동체 우수사례, 타 시군 벤치마킹 행렬

강진군에 타 시·군 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년공동체사업이 우수사례로 알려지며 담양군 청년공동체 회원 등이 강진을 동성리 청년숲과 청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벤치마킹은 강진군과 담양군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행사로 전남 청년 공동체간의 소통과 교류로 인구감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담양군이 강진군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강진군 청년공동체 ‘편들’이 2019년도



부터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과와 청년몰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푸소(FU-SO)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성전면 한옥마을 내 푸소 체험 마을과 병영면 빈집활용마을을 호텔 조성사업 현장도 견학하며 강진의 차별화된 인구 유입 전략도 살폈다.

군은 현재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편들, 청그요 2개 팀을 지원 중으로 이후 5개 팀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청년단체를 발굴해 지역 정착과 활동 기반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 군수는 “청년공동체가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운복 기자

해남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

단체, 한도액 내 100% 전액

해남군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등 인증 실비를 지원하

는 사업이다.

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작목반·법인)가 대상이다.

군은 올해부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인증의 경우 인증비용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액 100% 지원하며 잔류농약검사비도 검사품목 확대에 따라 15만원에

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인증 후 신청서, 인증서 사본, 인증비 납부증빙서,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경영비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더 많은 지원책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무안군, 체납액 효과적 징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다.

무안군은 상시 기동반을 통해 낮 시간대 단속활동을 펼쳤지만 체납액 징수 실효성이 떨어져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야간 기동반은 이면도로 외 야파트와 원로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매일 3일간 오후 6시~11시 체납차량 야간 집중 단속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금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회·전국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영치 번호판을 찾아 부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세무회계과(061-450-5379)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어린이 독서골든벨’ 참가자 모집 영암왕인문화축제

영암군은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아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착순 100명 모집 예정이며 초등 3년~6년 어린이는 참여할 수 있다.

소속 학교나 기관의 단체 신청을 통하거나 거주지 인근의 영암·삼호·학산도서관을 개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선정 도서 3권의 내용을 토대로 O/X퀴즈,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형태로 출제된 총 80개의 문제를 최후 1인이 남을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학생에게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2명), 특별상(6명)의 상상이 예정돼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